

“어떤 난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부딪혀라”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된다면’
유미 호건 저자/봄이아트북스/1만5천원



미국 메릴랜드 주 래리 호건 주지사의 한국계 부인 유미 호건(62)이 첫 자서전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된다면’을 출간해 화제다.

유미 호건 여사는 나주 출신이다. 스무 살 무렵 결혼과 함께 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 텍사스로 이민을 결정했다.

이민 이후 첫 남편과 이혼하고 새 짝을 홀로 키워내야 하는 어려움을 만났다. 수면시간을 아껴 새벽 6시부터 식당 점원으로 시작해 미술교육 아르바이트 등 2-3곳의 일자리를 뛰어 다니며 부단히 노력했다.

생활이 안정될 무렵 유미 호건은 메릴랜드에 정착해 화가가 되는 꿈을 이뤘다. 2000년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미국 작가들과의 그룹전이 열린 한 갤러리에서 래리 호건을 만나 2004년 5월 결혼했다.

이후 래리 호건은 공화당 후보로 주지사에 출마했고, 2015년 1월 민주당 강세지역인 메릴랜드에서 기적적으로 당선을 이뤘다. 아시아계, 라틴계 등 이민자들과 사회적 약자 층을 위한 공약과 함께 취임했다.

하지만 어느 날 호건 주지사가 암에 걸려 병상에 누웠고, 주지사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진술하게 됐다.

유미 여사와 세 딸은 주지사를 극진히 간호했고, 메릴랜드 주민들도 한 마음으로 응원했다.

이후 주지사는 암 투병을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았고, 메릴랜드주의 미래를 위해 힘차게 뛰는 지도자로 부각돼 미국인들에게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주 주지사의 부인 유미 호건 여사가 지난 4월21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유미 여사는 아시아계 차별 해소를 위해 한인 동포뿐 아니라 모든 아시아계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상호 존중과 지지를 하나가 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미 여사는 ‘유미 쿡스’(Yumi Cooks)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 음식 레시피도 나누고 있다. <메릴랜드주 제공>

美 메릴랜드주 퍼스트레이디 유미 호건 자전 에세이 전남 나주 출신...화가 꿈 위해 미국 텍사스로 이민 메릴랜드-전남도 물적·인적 교류 추진 등 앞장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입 조치 등 발 빠른 대응도

감동과 영감을 줬다.

“제 옆에서 위로와 힘을 준 유미에게 늘 감사합니다.”

호건 주지사는 퍼스트레이디 유미 여사를 일컬어 ‘한국이 메릴랜드에 준 선물’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유미 여사는 ‘메릴랜드야말로 신이 자신에게 준 선물’이라고 밝힌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이처럼 가족을 선물로 여기고 사람 감사할 줄 안다면 얼마나 평화로울까.

특히 유미 호건은 과감한 결단으로 시민을 위한 리더십을 선보인 래리 호건 주지사의 조력자 역할을 묵묵히 해내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빠졌을 때, 미국 50개 주정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방역대책을 펼친 메릴랜드주에 이목이 집중됐다. 유미 호건은 모국인 한국으로부터 진단키트 50만 개를 수입하는 등 빠른 조치를 이끌어냈다.

또한 주지사 남편을 도와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다.

유미 여사가 걸어온 길, 살아온 시간들이 한 권의 책 속에 담겨있다.

유미 여사는 메릴랜드주와 전남 지역의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나주 특산물인 배를 비롯해 전남 지역 농산물을 메릴랜드에 소개하고 인적자원 교류도 주도하고 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야구단에 김현수를 소개하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무엇 하나 녹록한 게 없는 인생이었다. 그러나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한 마디가 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부딪혀라. 희망은 언제나 그때 편이니까.”

래리 호건 주지사는 현재 미국 주지사협 회장을 맡아 공화당의 유력한 정치인으로 떠올랐다. 그의 단짝 유미 여사의 행보가 기대된다. /최명진기자

“누군가의 그리움에 위로가 된다면”

윤영초 시인, ‘꽃보다 향기롭고 아픈 건...’ 시집 출간
6년 귀촌생활 중 풀·꽃 등 자연 소재로 7번째 책 펴내



저녁을 생각하면/꽃보다 향기롭고 아픈 건/그리움이더라’

‘어떤 향기에 멈춘 발길/환하게 핀 꽃들과 바람 사이로/아픈 꽃들이/들끓는 노을빛에 떨어질 때/가슴 속에 다시 피어나는/꽃 같은 그리움//내 맘에 꽃이 피었다가 도/붉은 노을/붉게 우는 저녁을 생각하면/꽃보다 향기롭고 아픈 건/그리움이더라’

윤영초(사진) 시인이 제7시집 ‘꽃보다 향기롭고 아픈 건 그리움이더라’(청어)를 출간했다.

그의 시집을 펼쳐보면 시의 뼈를 추려 시의 심장을 들여다보는 해부학 교실에 다다르게 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윽한 눈빛과 편안한 미소로 던지는 그녀의 메시지는 시를 읽는 독자들의 가슴을 강하고 예리하게 파고든다.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시골살이 6년째에 접어든 윤 작가는 풀, 꽃, 나무들과 사랑을



나누고, 해, 바람, 비, 구름, 눈을 마주하며 행복의 가치를 알아가고 있다.

일상이 소박한 시가 되고, 모든 그리움들이 집목되는 사계절의 시간을 보내며 작가는 일기를 끄적이듯 시를 쓰고, 빗바람 추위를 소환하다 울고 웃으며 글을 써내려 간다.

작가는 대상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을 향기와 아픔이라는 대비를 통해 조화롭게 그려

려낸다.

윤 작가는 “누군가 내 시를 읽고 고개 끄덕여 주신다면, 가슴에 한 뼘이라도 그리움에 위로가 된다면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시는 일에 몰두하며 행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와 시가 아남의 경계는 유동적이다. 너무 느슨해서 오히려 경계의 나눔이 불필요해 보일 정도다.

어떤 작품이 시나, 시가 아니냐 묻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질문일지도 모른다. 그보다는 좋은 시인가, 나쁜 시인가 하는 특정한 시적 취향과 그 관점을 밝히고, 그에 대한 정당성을 따져가며 연구하는 일이 생산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이현수 시인은 “시로 위로 받고 시로 치유하는 글이 있다면 그게 윤영초가 지향하는 문학이자 시의 근간이 아닐까 싶다”며 “그의 시는 쉽고 편안하며 문장 연결 또한 매끄럽고 깔끔하다”고 평했다. /최명진기자

새로 나온 책



▲지금 내 시간은=김유진 저자

진정으로 혼자가 되어본 적 있는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도 친구와 함께하고 홀로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무섭다며 꿈도 꾸지 않는다. 어쩌다 혼자 있게 된 주말, 나를 만나줄 사람은 없으니 SNS를 살살이 훑는다. 반면 미국 2개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이자 베스트셀러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김유진 변호사는 ‘혼자가 되어야만 최고의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토네이도·1만5천원



▲그냥 하지 말라=송경영 저자

우리는 흔히 ‘미래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과거와 지금을 보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욕망을 이해할 수 있으면 미래의 변화를 상당 부분 알 수 있다.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데이터 분석가 송경영은 20여 년간 분석해온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고,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적한다. 이로써 앞으로 일어날 변화의 주요 축, 우리 사회의 가치관, 그에 맞는 개인과 조직의 성장문법을 제시한다. /투스톤·1만7천원



▲일기日記=황정은 저자

이름만으로 독자를 설레게 하는 작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작가 황정은의 첫번째 에세이집이 출간됐다. 작가는 만해문학상 수상소감(2019년)에서 소설을 쓰기 위해 “메일 답신을 쓰는 데 사용하는 문장도 아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을 정도로 소설 이외의 글을 발표하는 일이 드물었다. 거기다 베일에 싸인 작가의 실제 생활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는 데서 이번 출간은 이미 공고한 황정은의 팬덤뿐만 아니라 수많은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청비·1만4천원



▲필로소피 랩=조니 톰스 저, 유다인 옮김

“철학은 확실히 자기계발의 영역이고, 우리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젊은 철학자가, 학생들과 함께 고민해온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철학자의 상상으로 풀어놓는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듯 지금의 질문을 제시하고, 철학자들의 이야기로 해답을 제시하는 유머러스한 저자 특유의 문체는 철학에 대한 장벽을 없앤다. 당신이 가진 의문은 철학자가 가졌던 질문과 바로 연결된다는 사실에 놀라고, 철학자가 생각하고 연구했던 답이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데 한 번 더 놀라게 될 것이다. /월북·1만6천800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